

## 누가 내 가족일까요?(막 3:31~35)

(31)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

(32)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

(33)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

(34)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

(35)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

1. 요즘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소위 ‘패밀리’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.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무엇입니까? 어디까지를 당신의 가족의 범주에 넣을 수 있나요?

2.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지전능한 ‘신’의 존재라고 여기는데, 예수님도 부모님, 할아버지, 그리고 형제들이 있습니다(마1:16).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.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무어라 대답을 하십니까?(33~35)

3. 당신이 밖에 있던 가족들 중 하나라고 가정해 보세요. 동생이나 오빠를 찾아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을 가족이라 대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?

4. 마지막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. 예수님은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?

누구든지 ( )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( )요 ( )요 ( )이다(35).

당신은 위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나요? 공감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, 만약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눠보세요.